

시오타쓰의 역사적 개관과 건축물

시오타쓰는 우레시노시에 있는 구시가지로 사가현이 히젠국 하스노이케번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스노이케번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사가번의 지번(支藩, 본 가문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가 번주가 된 번)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초대 번주는 사가번의 초대 번주인 나베시마 가쓰시게(1580~1657)의 다섯째 아들 나오즈미(1616~1669)입니다.

시오타쓰는 나가사키항에서 규슈 북부의 고쿠라까지 연결하는 나가사키 가도의 역참 마을로 번창했습니다. 이 가도는 일본에 수입된 설탕이 나가사키에서 이 가도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운송되었던 것과 연관 지어 ‘슈거 로드(Sugar Roa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건축

시오타쓰에서는 지금도 전통 이구라즈쿠리 양식인 상인의 집의 상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의 특징은 지붕 사이로 삼각형 벽이 보이는 이리모야즈쿠리(팔작지붕) 양식의 기와지붕입니다. 이 지역의 지붕은 원래 초가지붕이었는데, 초가지붕은 화재와 홍수에 약해서 기와지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현관은 일반적으로 각 건물의 앞과 뒤 양쪽에 있으며,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옥은 상인의 주거지와 창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점토 산업

인근 아리아케 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시오타쓰를 흐르는 시오타 강은 18 세기 초에 양질의 도석 산지로 알려진 아마쿠사에서 배로 도석 원석을 운반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후에 아마쿠사는 도석을 점토로 가공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시오타쓰에서는 도자기도 생산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일본 국내외 시장으로 향하는 교역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무역을 활성화하였고 이를 통해 오늘날 사가현 남서부의 경제 거점이 생겨났습니다. 1964년에는 대형 크레인을 갖춘 근대적인 항구가 건설되었으며, 배에서 도석을 트럭에 옮겨 실어 지역 공방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관

이 지역은 20 세기 초에 대중교통 기관이 정비되었습니다. 1904년에 이웃한 다케오시와 유토쿠이나리 신사를 연결하는 마차철도가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1915년에는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철도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시오타쓰에 있는 일부 건물은 철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간선 도로 폭의 확장이 필요해져 몇 미터

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